

# “지역 문화예술 후원 계원이 돼 주세요”

## 광주문화재단 '만만계' 프로젝트

만원 모금하면 만원 없어 지원  
창작활동 돕는 광주형 메세나  
공모 통해 9개 프로젝트 선정

“시민 여러분이 지역 문화예술 모금 프로젝트의 계원이 되어 주세요.”

시민이 내는 기부금에 똑같은 금액을 더해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일명 ‘만세 만세 만(萬)만(滿)계’ 프로젝트.

광주문화재단은 지역 예술인·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 펀딩프로젝트-만세만세 만(萬)만(滿)계’ 모금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만만계’ 프로젝트는 선정된 예술인이나 단체가 프로젝트 사연에 맞춰 네이버 해피빈과 다음 스토리펀딩에 사연을 올려 모금을 하는 방식이다. 문화재단은 ‘만만계’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모두 9개 프로젝트를 최종 선정했다.

온라인 모금은 7월부터 10월까지 개별 프로젝트에 따라 오픈 및 운영된다. 네이버 해피빈은 광주문화재단 해피로그(happylog.naver.com/gjcfgive.do)를 통해 개별 모금함에 기부 가능하다. 다음 스토리펀딩은 9월에 3~4차 연재물로 오픈한다.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모금이 가능하다. 문화재단과 프로젝트 선정 문화예술인·단체는 모금액 달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갯날(100만원 이상 모금 달성/모금 종료)’이 되면 모금액 1만원 당 1만원을 더해준다.

예를 들어 126만원을 모금했다면 재단이 126만원을 더해 최종 252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구조다. ‘만만계’ 이자액 매칭은 프로젝트당 최대 1000만원까지이고 모든 사업비 4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김중률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은 “시민 모두가



‘만만계’ 프로젝트 ‘보듬어 드림(Dream)’에 선정된 빅풋의 공연예정 작품. <광주문화재단 제공>

하나의 계원이 되어 문화로 가득찬 광주를 함께 만드는 ‘만만계’는 ‘문화보듬 1만 운동’에 이은 광주형 메세나의 또 다른 시작”이라며 “온·오프라인을 통한 많은 관심과 기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소외계층 보듬 분야 ‘보듬어 드림(Dream)’= ▲빅풋의 ‘미디어아트 드림(Dream)-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미디어아트 공연 프로젝트’ ▲마당여우의 ‘재담 마당극 꽃산-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 프로젝트’.

◇순수예술 창작분야 ‘문화가 든, 문화가 든’= ▲정인사의 ‘색(色)다른 모양 꼴(形) 다른 이야기-광주 공공조형물 및 건축물 자료집 발간 프로젝트’

▲전통타악연구회 두드리의 ‘전통문화예술 나뉘드림(Dream)-찾아가는 전통문화예술공연 프로젝트’ ▲광주시민문화예술동아리협회의 ‘국악과 재즈의 만남-퓨전 재즈 대중화를 위한 공연-지역 퓨전재즈 대중화 공연 프로젝트’ ▲아프리카타악그룹 아나포의 ‘아프리카 리듬과 열정을 Anya Fol 콘서트’ ▲박화연의 ‘박화연 개인전’ ▲빛고을댄서스의 ‘스트릿댄스 배틀-라인업’.

◇신진예술가 지원 분야 ‘나는 하나의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었다’= ▲노은영의 ‘도시, 욕망의 공간-노은영 개인전-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명창 안숙선의 달빛 병창’

내일 담양 가사문학관 ‘풍류 달빛 공연’

장마철 후텁지근한 무더위를 씻어줄 안숙선(사진) 명창과 함께 하는 명품공연이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은 8일 오후 8시 담양 한국가사문학관에서 세 번째 ‘풍류 달빛 공연’으로 안숙선 명창과 그의 제자들이 펼치는 ‘안숙선의 달빛 병창’을 선보인다. 국악인 김나니 씨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가야금명창, 아쟁연주, 판소리, 민요 등 다양한 전통국악을 선보인다. 첫 무대는 안숙선과 그의 제자인 고수 조용복(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수석), 가야금 명창 박혜련·김지애(제23호 중요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가 함께 선보이는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다.

한림 연주자(제26회 온나라전국국악경연대회 대령상)는 김일규류 아쟁산조를 선보인다. 이어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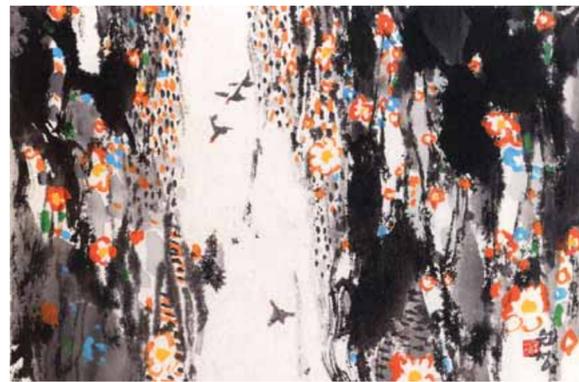
야금 명창 박혜련·김지애·김미성(제23호 중요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이 ‘팔도민요’, 안숙선 명창의 판소리 ‘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이 우리 판소리의 정수를 한껏 느끼게 해줄 예정이다. 마지막 무대는 안숙선과 제자 모두가 함께 부르는 남원산성, 진도아리랑 등 ‘남도민요’로 마무리한다. 우천 시 공연은 한국가사문학관 내 영상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풍류 달빛공연’은 풍류남도 나들이 사업의 하나로 매월 보름달 가까운 토요일에 열리는 무료공연이다. 특히, 올해 ‘풍류달빛공연’은 MBC ‘우리가락 우리문화’를 통해 방송된다. (방송일시 7월30일, 8월6일 오전 8시40분) 문의 062-232-2155.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생활 속 이야기’...한미사 개인전



▶‘자연에서’

### 28일까지 LH 휴광갤러리

한미사 개인전이 28일까지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 지역 본부 1층 LH 휴광갤러리에서 열린다.

‘생활 속 이야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한씨는 꽃, 나무, 집, 바다 등 삶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풍경과 이야기를 풀어낸다. 한씨가 선보이는 작품은 수묵담채화로 은은한 먹빛 화폭 사이, 화사한 색감의 꽃과 집들이 어우러져 산뜻한 느낌을 준다.

푸른 하늘 아래, 과감하게 생략된 산의 모습이 인상적인 ‘산 메아리’, 노란 개나리꽃과 아기자기한 집들이 어우러진 ‘개나리꽃’, 여백의미를 살린 공간에 평온한 거리 풍경과 목련을 배치한 ‘목련꽃 피기까지’ 등이 눈길을 끈다.

한씨는 전남도 미술대전에서 4차례 특선을 받았으며 매직아워전, 먹그림회원전 등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현재 전남도전 추천작가, 실사회원, 송목회원, 현목회원 등으로 활동중이다. 문의 062-360-3390. /김미은기자 mekim@

## 세월호 추모곡 ‘...노란 리본’ 독일 초청 공연

김정아씨, 에센 뷔르거마이스터하우스 피아노 독주회

세월호 추모곡 ‘가슴에 묻은 노란 리본’이 독일 초연된다.

독일 A.K.Z.아카데미 초청으로 오는 12일 오후 7시30분 독일 에센 뷔르거마이스터하우스에서 독주회를 갖는 피아니스트 김정아(사진)씨는 지난 2015년 광주에서 초연했던 피아노 모음곡 ‘가슴에 묻은 노란리본’을 연주한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어린 영혼들과 가족들을 기억하며 위로하는 마음을 담은 곡이다. 피아노모음곡 ‘가슴에 묻은 노란리본’은 수확여행, 설레임, 불길한 예감, 물거품, 나비, 가슴에 묻은 노란리본, 영혼의 춤 등 12개의 곡으로 구성돼 있다. 작곡자는 광주민중항쟁을 소재로 한 오페라 ‘무등



동등’을 만든 김선철씨다. 김씨는 이번 연주회에서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라장조 K.576’,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소나타 2번’을 연주한다. 김씨는 서울예고, 이화여자대학교, 오스트리아 빈 시립음악원,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를 졸업했으며 현재 광주대학교 문화예술대학 음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공연 정보 www.buergermeisterhaus.de.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남지부 ‘녹색가정 만들기’ 다짐대회

사단법인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라남도지부(회장 이승자)는 ‘녹색가정만들기’ 다짐대회 및 녹색생활실천 시상식을 오는 10일 오전 10시 화순 하니움 문화스포츠허브 만연홀에서 개최한다.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줄이기기 기후변화 대응에 핵심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가정에서 에너지 이용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다. 사단법인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라남도지부는

2010년도부터 탄소 줄이기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전년도와 금년도 동일 탄소배출량(전기, 가스, 수도량)을 비교하는 체계적인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녹색생활실천 참여가정 중에서 40여 우수가정을 선정해 시상하고 전남 300여 가정을 선정 탄소줄이기 체크리스트, 녹색가정만들기 실천 가이드북을 배부할 예정이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www.jncbms.co.kr

문화역사기행은 **BEST CHOICE**

## 문화와 역사가 숨쉬는 공간

# 사진으로 보는 문화역사기행

문화역사기행은 *어제의 역사와 오늘의 삶 그리고 내일의 시간을 기쁨하는 기회이다.*

이 책에 수록된 문화역사의 공간들은 우리가 한번쯤은 역사 시간에 들었거나, 드라마나 영화 혹은 문화적 재현을 통해 봤을 직한 장소들이다. 거기에는 절절한 아픔과 통탄의 역사가 스며있기도 했고, 더러는 우리 문화의 진미(眞美)가 오롯이 깃들여 있기도 했다. 책에는 기자의 시각, 작가적 상상력, 인문학자의 사유가 투영돼 있어 역사와 문화를 다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소설가 특유의 감성적 문체와 저널리스트의 눈으로 본 현장감이 겹쳐져 읽는 맛을 더해준다.

“직접 발품을 팔아 보고, 듣고, 체험한 역사는 힘이 있다. 나의 것으로 온전히 체득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역사가 되고 의미 있는 문화가 되기 때문이다.”

소설가이자 광주일보 기자인 저자는 전남대 영문과와 동대학원 국문과 박사과정(문학박사)을 졸업, 2000년 전남일보 신춘 문예에 소설이 당선돼 문단에 나왔으며 2006년 소설 시대 신인상을 수상했다. 다양한 영역에 걸친 글쓰기를 통해 사람과 세상, 문화에 대한 지평을 넓혀가는 인문학자이다.

저자 박성천 | 정가 18,000원 | 224쪽 | 크라운판 | 소프트 | 윌클러 | 제이앤씨 출판사